

## 5》 교수사회 대표 선거 진행



## 7》 우리학교 꽃 이야기 18: 소나무



## 학사다이어리 – 정기강의평가 실시

기간: 12월 1일 ~ 26일

대상: 양캠퍼스 재학생 전원

\*강의평가 실시 학생은 12월 15일부터 성적입력 완료시 성적조회 가능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은 12월 31일부터 성적조회 가능

# 당선

## ‘오늘의 경희’ ‘하:들’ ‘ALLFami’

### 서울캠 총학·총여·총유 선거결과

백승철 기자 schot1357@knu.ac.kr

【서울】각각 단선으로 치러진 총학생회(총학), 총여학생회(총여) 총유학생회(총유) 선거결과, 총학에 ‘오늘의 경희’ 선거운동본부(선본)가, 총여에 ‘하:들’ 선본이 당선됐다. 총유는 투표율을 미달로 투표일이 27일까지 연장되는 우여곡절 끝에 ‘ALLFami’ 선본이 당선됐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진 ‘제47대 총학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11,883명 중 51.30%(6,093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가운데, ‘오늘의 경희’ 이정이(아동가족학 2012) 정후보와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후보가 찬성표 75.03%(4,574명), 반대표 19.5%(1,189명)로 당선됐다.

당선이 확정된 직후, 이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응원해주신 많은 학우들의 눈빛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 1년간 더 많이, 또 더 자주 소통하는 총학생회장이 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제28대 총여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6,204명 중 52.13%(3,23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들’ 선본의 김혜영(아동가족학 2012) 정후보와 이바름(한약학 2013) 부후보가 77.92%(2,520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금 당선자는 “저희를 선택해주신 학우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저희의 공약에 대한 응원과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당선자들은 오는 2015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제5대 총유 선거’의 경우, ‘ALL

## 그들도 아주 웃겨?! 루쉰 《고사신편》

###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④

배도임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루쉰(魯迅, 1881~1936)은 20대에 의사가 되고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 때 ‘환등기 필름’ 속에서 중국의 비참한 현실과 정신이 마비된 동포를 보고, 사람에게는 정신의 병이 훨씬 큰 문제이며, 정신의 병을 고치려면 문학밖에는 없다고 깨닫는다.

이후 루쉰은 한 친구와 ‘쇠로 된 방[鐵屋]’의 비유를 들어 중국의

미래, 즉 ‘희망’을 논한다. 그리하여 중국 최초의 현대 백화소설인 「광인일기(狂人日記)」를 써서 진보적인 잡지 《신청년(新青年)》에

발표한다. 그는 첫번째 소설집 《외침(呐喊)》(15편 수록, 1923), 두번째 소설집 《방황(彷徨)》(11편 수록, 1926)과 세번째 소설집 《고사신편(故事新編)》(8편 수록, 1936)을 출간하였다.

첫번째 소설집의 제목인 ‘외침’은 중국어로 개전의 북소리가 울리면 선두 병사들이 적을 향해 돌진하면서 외쳤던 함성을 가리킨다. 이는 어리석은 민중을 각성시키고 중국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계의 전사’가 되고자 했던 루쉰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3년 뒤에 출간한 두번째 소설집은 40대 중반

에 이른 그의 고뇌와 ‘방황’이 드러난다. 세 번째 소설집은 옛날이야기를 ‘새롭게 쓴 것’이다. ‘새롭게 썼다’는 재해석하고 재평가한다는 말이다. 루쉰은 코믹화를 그리듯이 중국 신화전설 속의 영웅과 성현들을 불러내고, 그들의 ‘위대성’과 ‘도덕성’을 차차 없이 벗겨내어 아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였다. 《고사신편》은 1936년 10월 19일 그가 사망한, 그 해 1월에 발간된 것이다.



루쉰은 ‘정신계의 전사’가 되고자 했다.

### 알림

#### 대학주보 온라인 ‘이슈스트림’ 서비스

(media.knu.ac.kr/khunews/issue\_stream)

##### 이슈 stream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흐름과 맥을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학주보는 각 키워드별 관련 기사를 시기순과 호응도순으로 정리해, 독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슈를 읽어낼 수 있도록 ‘이슈스트림’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학 특성화사업 칼럼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실천 중심의 융합  
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 서정건 부단장의  
‘글로벌 인재 키우는 연수·봉사’ ▶6면

